

‘제주 패스’... 경선 후보들 방문 계획 없어

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 27일 일산서 통합 진행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돼
국민의힘, 지역 순회 포기... TV토론으로 대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예비후보들의 제주 방문이 이뤄지지 않아 대선에서 제주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치르고, 국민의힘은 지역 순회 경선 없이 TV토론으로 대체하면서 각 당은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 뒤에야 후보의 제주 일정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지난 19일 충청권(청주체육관), 20일 영남권(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이어 오는 26일 호남권(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고, 마지막 27일에 수도권·강원·제주 권역 경선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통 권역별 경선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과 강원·제주를 묶어 경기도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제주에서는 후보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

는다. 제주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만에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이다.

경선 행사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들의 제주 방문 일정도 경선 기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경우 지난 4월 3일 제주4·3희생자 국가추념식에 각각 민주당 당 대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제주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경선이 마무

리되는 오는 5월 3일까지는 후보들의 제주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촉박해 경선이 끝날 때까지 예비후보들의 제주 방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경선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번 당내 경선은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순회 전당대회를 포기하고 지역별 TV토론으로 대체했다.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8명의 경쟁 구도에서 4명이 탈락하면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나다순) 후보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인을 확정했다. 경선에 뛰어들 8인의 후보 중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컷오프됐다.

이날 경선 결과를 보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인 안철수·한동훈 후보와 반대 입장인 김문수·홍준표 후보 2대2 구도다.

이번 2차 경선 진출자를 선정하는 1차 경선 여론조사는 ‘100% 국

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1차 경선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차 경선 진출자들은 24-25일 경쟁 주자를 1명 지목해 1대1로 맞붙는 주도권 토론, 26일 4인 합동 토론을 하게 된다. 이후 27-28일 2차 경선 여론조사를 거쳐, 살아남은 최종 2인이 결선을 치르게 된다. 2차 경선 여론조사는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50%로 실시된다. 부미현기자



출국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공항 출국장을 이동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선 후반... 주자들 호남 찾아 경쟁

李 밀어주기 vs 견제 ‘관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주자들이 22일 당의 ‘심장부’ 호남 표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총 네 차례 열리는 당원 대상 지역 순회 경선은 지난주 충청권과 영남권을 거치며 반환점을 돌았고 3차 호남권(26일)과 마지막 수도권

경선(27일)만 남겨두고 있다. 당장 다음날(23일)부터는 광주·전남·전북 당원 대상 투표가 사흘 간 진행된다.

특히 호남은 당의 텃밭인 데다 대선 후보나 당 대표 선출을 비롯한 주요한 국면에서 전통적 지지층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후보는 주 후반부인 오는

24일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고, 조만간 호남 맞춤형 정책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이날 호남행에 올라 전북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고,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난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호남권 동서 횡단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독주하는 이 후보에 대한 견제성으로 호남에서 비명계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수사 확대... 尹-통일교 주선 조준

2022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향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전씨가 받은 금품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고 전씨에게 돈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던 2021년 12월 22일 전씨와

윤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메시지에는 3000만원의 현금دا발 사진이 있었다.

돈을 건넸던 윤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가 국민의힘의 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심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당직자는 진행 중이던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고문(전씨 지칭)님의 지휘 아래 A씨와 B씨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문자로 알렸다.

연합뉴스

경 축

(주)제주막걸리 - 국가지정 HACCP(해썹) 인증

한라일보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HA

위해요소분석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CCP

중요관리점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청정 확산임반수로 만든 생유산균이 살아 있는 제주 막걸리

HACCP(해썹) 인증 획득






국내판매용

일본수출용

(주)제주막걸리 대표이사 고동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2-3
사무실 : (064)713-4001, FAX. (064)713-5001

※ 광고에 나타난 음주는 뇌졸중, 기력약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